

1년 만에 벤투호 합류한 손흥민 “멕시코·카타르 이기겠다”

축구대표팀, 15일 멕시코·17일 카타르 평가전

월드클래스 평가엔 “최고라 생각한 적 없어”

1년 만에 벤투호에 합류한 손흥민(28·토트넘)이 멕시코, 카타르전 승리를 다짐했다.

손흥민은 12일(한국시간)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표팀에 오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이다. 동료들과도 1년 만에 만나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설레는 기분을 느끼려고 대표팀에 오는 건 아니다. 많은 팬이 대표팀 경기를 기다렸고, 오랜만에 유럽에서 소집된 만큼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의 재회에 대해선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평소에도 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다.(웃음) 이번엔 날 보더니 ‘오랜만에 봤는데 안 바뀌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코치진은 좀 바뀐 것 같으냐고 물으셨다’

고 말했으며, 벤투호는 빈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 비너 노이슈타트 슈타디온에서 멕시코와 불고, 17일 오후 10시엔 카타르와 BSFZ 아레나에서 격돌한다.

해외 일정 평가전은 지난해 11월 1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치른 브라질과의 평가전 이후 1년 만이다. 또 정상적인 A매치 평가전도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이후 처음이다.

특히 멕시코는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서 1-2 패배를 안겼고, 카타르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에서 0-1 아픔을 준 상대들이다.

손흥민은 “두 팀 모두 큰 대회에서 만났고 아픔을 겪은 팀들이다. 선수들

한테도 그런 의미를 다시 얘기해줬다. 나도 이번엔 너무 이기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들도 1년 만의 대표팀 경기에서 승기를 거둔다면 좋아할 것이다. 또 선수들의 분위기도 올라올 수 있다. 두 팀 다 강팀이지만, 우리도 충분히 강한 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표팀은 일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제외되면서 엄원상(광주), 윤종규(서울), 정태욱(대구) 등 어린 선수들이 합류했다.

손흥민은 “못 온 선수들은 아쉬울 것이다. 얼마나 대표팀에 오고 싶었나. 오지 못한 선수들의 마음이 이해된다”면서 “어린 선수들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도 봤지만, 잘 따라주고 열심히 한다. 모두 기대된다”라고 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최고의 선수로 활약 중이다. 8골을 터뜨리며 제이미 바디(레스터시티),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도미닉 칼버트-리윈(에버턴) 등과 득점 공동 선두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나를 최고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정말 한 순간도 그런 적이 없다. 소속팀에서도 대표팀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왔다”라고 말했다.

토트넘에서 팀 동료 해리 케인(잉글랜드)과 최고의 호흡을 자랑 중인 손흥민은 대표팀에서 황의조(보르도), 황희찬(라이프치히)과도 좋은 모습을 기대했다.

그는 “의조나, 희찬이도 서로 안 지 패 됐고 서로 원하는 게 뭔지 잘 안다. 둘 다 소속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난 운이 좋게도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의조와 희찬이 모두 대표팀에서 경기력을 올려 돌아갔으면 한다. 그걸 돕는 게 내 역할”이라고 말했다.

빡빡한 일정으로 인한 체력 문제에 대해선 “매번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데(웃음), 나에겐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축구를 하는 게 꿈이었고, 축구를 할 때 행복하다. 당연히 피곤할 때도 있지만 내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지친 모습을 동료들에게 보여선 안 된



남자축구대표팀 손흥민이 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마리아너체스도르프 BSFZ아레나 보조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며 브이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벤투호는 오전 1시간 10분가량 훈련을 진행했다. 25명 선수단

이 처음으로 모두 모인 가운데 멕시코전을 준비했다.

뉴스

‘은퇴’ 정근우 “포기하지 않았던 나에게 감사”

2005년 SK 입단, 한화 거쳐 LG서 현역 은퇴

“2루수로 은퇴하게 돼 행복하고 감사”



LG트윈스 정근우 선수가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미소짓고 있다.

“2루수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KBO리그를 대표했던 ‘악바리’ 정근우(38·LG 트윈스)가 그라운드를 떠난다.

정근우는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프로야구 정근우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자리다. 프로 지명을 받았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평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16년의 세월이 흘러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은퇴 소감을 밝혔다.

정근우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2005년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지명으로 SK 와이번스에 입단, 2014년 자유계약선수(FA)로 한화로 이적했다. 2020시즌을 앞두고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LG 유니폼을 입었다.

통산 1747경기에 출장해 타율 0.302에 1877안타 121홈런 722타점 1072득점 371도루의 성적을 남겼다. 2루수 중 통산 안타·타점·득점·도루 부문 1위고, 2루수 최다 홈런 3위 기록이다. 2루수 골든글러브 3회(2006, 2009, 2013년), KBO리그 득점왕 2회(2009, 2016년)를 수상했다. 특히 KBO리그 최다 기록인 끝내기 안타 16개를 기록한 바 있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2루수로 자리매김한 그는 태극마크를 달고도 맹활약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09년 WBC 준우승,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5년 WBSC 프리미어12 우승 등에 기여했다.

2루수는 그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다. 한화 소속이었던 2018~2019년 외야와 1루를 오가며 포지션 변경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는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2루에서 해왔다.

정근우는 “2루수를 처음 볼 때 선배들이 ‘내아가 한자리에서 10년 동안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는데, ‘나는 10년 넘게 할 거야’라는 목표를 가졌다. 어떤 사람에게도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 매순간 열심히 살았다”며 “2루수로 은퇴하게 돼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다. 다음은 정근우와의 일문일답

-은퇴 소감은.

“처음 프로 지명을 받았던 소식 듣고 그 자리에서 평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16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인사드린다고 하니 마음이 아쉽다. 16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은퇴하는 것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는 없다.”

-은퇴 계획을 세운 시점은.
“올 시즌(7월 하버지) 부상을 당하고 나서부터다. 내 2루수 플레이에 대해 주변에서 하는 기대가 있고, 나도 기대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때의 정근우가 아닌 생각이 들었다.”

-선수로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때가 있다면.
“2008 올림픽과 2015년 프리미어

12 우승할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프리미어12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2루수로 나간 마지막 경기였다. 그때 마지막이란 생각을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국가대표를 그만두게 됐다. 그때 주장으로서 행복했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다.”

-자신을 표현하는 여러 수식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악마의 2루수가 좋다.(웃음) 아시다시피 김성근 감독님께 평고를 워낙 많이 받아서, 악마의 2루수가 안 되면 안 됐다. 경기에 나갈 땐 항상 위로는 몰라도 양옆으로는 빠뜨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김성근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 했다.

“왜 벌써 그만두냐고 하셨다. ‘지금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감독님 덕분에 잘 컸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팀 선배 박용택은 은퇴를 예고하고 많은 축하를 받으며 시즌을 마쳤다. 은퇴 발표 미룬 것 아쉽지 않나.

“아쉽다.(웃음) 사립이니까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이 자리도 나에게 큰 영광이다. 은퇴 발표를 시즌 중 하고 싶단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니 용택이 형이 축하를 받고 계신데 그 분위기에서 내가 은퇴한다고 하면 눈이 칠 것 같았다. 용택이형의 은퇴 투어가 끝난 다음에 생각했는데, 팀 순위가 결정 나지 않았었다.”

-동갑내기 김태균이 최근 은퇴했지만, 내년에 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만둔 친구도, 내년에 뛴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 대단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대표팀도 가고, 선의의 경쟁도 했다.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모두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

-정근우에게 2루수는 어떤 의미인가.

“2루를 처음볼 때 선배들이 ‘내아가 한 자리에서 10년 동안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다. ‘나는 10년 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왔다. 자리 내주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열심히 살다 마지막에 이 자리에

서 은퇴하게 돼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향후 계획은.

“이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가정으로서 지금까지 뒷바라지를 잘 해준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장, 좋은 아빠가 될지 고민해봐야 한다.”

-은퇴에 대한 가족들 반응은.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아이들이 울지 않고 큰절을 해주더라.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하는데 감동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지금까지 해왔던 매 경기가 감동이었다고,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더라.”

-입단할 때보다 성장한 2루수로 평가된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고등학교 때 입스가 왔었고, 대학교 때 또 입스가 왔다. 프로에와서도 입스가 3번 왔다. 팔꿈치 수술도 3번 했다. 고등학교때 병원에 갔을 때 ‘이 팔로는 야구를 못한다’고 했다.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정근우는 없었을 텐데 이겨내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

-KBO리그 역대 최고 2루수라는 평가에 대해 본인 생각은.

“맞다.(웃음) 그만큼 열심히했다. 더 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보다 받은 게 많았다. 우리 후배들이 그 기록을 넘기 위해 열심히할 거고, 본보기가 된 거 같아 좋기분하기도 하다.”

-아들이 야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첫째 재훈이가 야구를 하고 있다. 내가 어릴 때 야구에 너무 열매였다 보니 지치고 힘든 시기가 많았다. 재훈이가 야구를 재미있고, 행복하게 했으면 하는 게 아빠의 바람이다. 아들이 아빠의 기록을 뛰어넘겠다고 하길래 제발 해달라고 했다.(웃음)”

-가족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릴 때부터 야구시킨다고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정말 고생 많이했다. 정말 감사드린다.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도 감사하다. 덕분에 정말 야구생활을 잘했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랑한다. 지금까지 정근우 정말 많은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덕분에 행복하게 은퇴할 수 있는 것 같다. 너무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김미희기자

이승우 “올림픽, 모두 가고 싶은 대회”

유럽서 뛰는 선수들 대거 합류·마지막 기회



2년여 만에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에 돌아온 이승우(신트트라위던)가 도쿄올림픽을 위해 주어진 환경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집트 3개국 친선대회 출전을 위해 김학범호에 합류한 이승우는 12일(한국시간)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약 2년 만에 돌아왔다. 선수들이 많이 바뀌고,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봤다. 잘 적응해서 감독님이 원하는 것에 잘 맞춰야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승우가 김학범호에 돌아온 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약 2년2개월 만이다. 일본과의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골을 터뜨려 금메달의 중심에 섰던 좋은 기억이 있다.

이후 A대표팀에 뛰기도 했다. 이번 소집의 의미가 남다른 건 내년 도쿄올림픽 때문이다.

김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 유럽에

서 뛰는 선수들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면밀히 살펴 엔트리 구성에 참고할 계획이다. 사실상 유럽파들에게 마지막 기회다.

이승우를 비롯해 백승호(다름슈타트),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천성훈(아우크스부르크), 김정민(비토리아), 김현우(이스트라)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다.

앞서 김 감독은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을 최대한 불러 확인할 기회”라고 했다. 특히 이승우에 대해선 “그동안 경기를 못 뛰어서 이번이 평가할 마지막 기회라서 신발했다. 기존 선수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는 “(올림픽은) 모든 선수들이 다 나가고 싶어 하는 대회다. 올림픽에 나간다면 한국을 대표로 하는 메이저대회에 모두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정기자

류현진, 토론토 사이영상 투표 3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아메리칸리그(AL) 사이영상 투표 결과 발표된 뒤 구단 공식 소식이 토론토 구단도 축하했다.

토론토 구단은 12일(한국시간) 미국야구기자협회(BBWA)의 사이영상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구단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류현진의 3위 등극을 축하했다.

류현진의 성적과 투구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한 토론토 구단은 “블루제이스의 99번째로 보낸 첫 해 대단한 활약을 선보였다. 류현진이 사이영상 투표에서 3위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AL 사이영상 투표 결과 류현진은 2위표 4장, 3위표 7장, 4위표 5장, 5위표 4장 등 총 51표를 받아 3위에 자리했다.

2019시즌을 마치고 토론토와 4년 8000만달러에 계약한 류현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팀당 60경기만 치른 올 시즌 12경기에 선발 등판했으며,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의 성적을 거두며 토론토의 에이스로 우뚝 섰다.

뉴스